

200자안내

1986년 9월의 비망록

박용수 작

KBS가 1987년 2월 방송 60주년을 맞아 제정된 제1회 KBS방송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화재 밀반출을 다룬 당선작 「1986년 9월의 비망록」(박용수), 가작 「나는 왕이로소이다」(권혜수), 가작 「등대에 불 밝히기」(백금남), 장려상 「토민」(안병규) 등을 수록했다.

한국방송사업단 / A5신 / 600면 / 5000원

이들을 보소서

이재철 편

부제는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는 이웃들의 이야기. 사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된 도시빈민들과, 제대로 어울릴 수 없는 신체장애자 등 우리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사진 화보와 함께 담고 있다.

弘盛社 / A5신 / 246면 / 3000원

牧會學

로버트 C.앤더슨 저 / 이용원 역

목회의 이론과 실재를 다룬 책. 목사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교인들과는 어떻게 해야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목사의 직무와 과업은 또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구체적으로 세분되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목회 초년생이나 신학생은 물론 오랜 목회를 해온 목사들도 활용할 수 있다.

所望社 / A5신 / 440면 / 6000원

社報의 기획과 편집

이의용 저

사보기자를 위한 사보편집 지침서. 기업 PR의 하나인 사보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잡지론, PR론, 사보론 등을 개괄했다. 이와 함께 사보제작에 필요한 뉴스·취재 방법, 사보의 문장 쓰는 방법, 사진 선택방법 등을 기술해 사보제작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부록으로 '알아두어야 할 전문용어', '사보기

자가 읽어야 할 책 목록' 등을 실고 있다.

서울에디터스클럽 / A5신 / 276면 / 비매품

장희빈(上·下)

朴鍾和 작

월탄 박종화의 대표적인 장편역사소설. 병자호란 이후 1백여년의 역사를 궁중과 조정의 온갖 인물들과 분열된 정치상황을 통해 그리고 있다. 한국인의 독특한 인간상의 묘사를 통해 흥미와 교훈을 더해주고 있는데, 저자의 웅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필치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汎友社 / A5신 / 각권 440면 내외 / 각4000원

黄金의 탑 1·2·3

李炳注 작

미로처럼 얽힌 한 재벌 후계자의 사망비밀을 풀어헤쳐 나가는 가운데 고도성장기 한국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 도덕적 타락 등 그늘진 이면을 조명하는 본격 추리 세태소설. 한국적인 부의 속성과 이를 둘러싼 인간의 왜곡된 심리 등이 날카롭게 묘사되어 있다.

기린원 / A5신 / 각권 260면 내외 / 각3000원

과정신학과 불교

존 B.잡 저 / 김상일 역

원제는 Beyond Dialogue. 기독교와 타종교, 특히 기독교와 불교간의 '대화'하는 내용과 방법을 기술한 책이다. 20세기의 그리스도교는 인접종교의 기본지침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열반, 無 등의 불교사상이 서양인의 시각에서 새롭게 분석되고 있다.

大韓基督教出版社 / A5신 / 208면 / 3000원

腰痛教室

加藤文雄 저 / 박학주 외

요통이란 무엇이고 그 예방책은 무엇인가. 이 책에는 추간판탈출증을 비롯한 각종 요통에 대한 증세와 판단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통체조를 소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요통을 일으키기 쉬운 동작을 그림을 곁들여 지적하고 있다.

近思 / B6신 / 166면 / 2500원

대화의 에티켓

전영우 저

우리는 어느 정도의 대화의 기본을 알고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이 책은 대화의 기본인 대화의 조건, 능력, 분위기, 화제선택, 어휘선택에서부터 설명·보고·인포메이

션·설득 등의 말하기 기능과 토의·토론·회의·연설의 유형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집문당 / A5신 / 330면 / 3000원

그 다음은 沈黙

李世基 작

월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세기씨(서울신문사 TV가이드부장)가 「바람과 놀며」 이후 10년만에 내놓은 창작집. 신문상승 욕구가 강한 한 여인의 얘기를 다룬 「그 다음은 침묵」 외에 「꽃 흐트림」 「두시간 십분」 「퇴근후」 등 16편의 단편을 수록했다.

햇빛출판사 / A5신 / 296면 / 3000원

朝鮮日報 報道寫眞集 '88

사진부 편

87년 한해 동안 국내외에서 일어난 각종 뉴스 사진을 실은 사진집. 제13대 대통령 선거, 이한열군 사건, 박종철군 사건, 두 김씨의 '정치현장', 6월항쟁, 중부 수해현장 가다, 노사분규,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특집으로 꾸며지며, 그 밖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다.

朝鮮日報社 / B5 / 240면 / 9000원

논리학이란 무엇인가

프레드 R.버저 저 / 김영배 역

논리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포괄적이고도 쉽게 설명한 책.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리학 입문서들이 한두가지의 논리체계와 그 기법들에 치우쳤던 것과는 달리 이 책은 논리학이 무엇인지, 또한 이와 관련된 철학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논리학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서광사 / A5신 / 272면 / 3500원

現代共產主義理論과 實際

金炳河 외 공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정된 현실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현대공산주의 이론과 그 실재를 다룬 책. 공산주의 이론의 의미와 출현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현대적 변용으로서 유로코뮤니즘, 해방신학 등과 함께 소련, 중국, 북한 공산주의의 현실을 살피고 있다.

法文社 / A5신 / 582면 / 8500원

어디서 무얼하며 살았니

김길옥 외 작

金吉玉, 朴海環, 朴惠淑, 孫今玉, 安薰, 林惠

주 등 전직여기자 6인의 대표에세이를 모아 묶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위의 것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엿볼 수 있는 65편의 에세이를 담고 있다. 오늘의 여성 6인 에세이집.

自由文學社 / A5신 / 330면 / 3300원

직장에절

염규운 저

직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 책은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자세, 바르고 요령있는 대화의 예절, 전화의 역할과 예절, 직장인의 옷차림과 몸치장 예절, 방문할 때와 접대할 때의 예절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함께 예의바른 직장인의 상식을 실고 있어 직장인에게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다.

미래문화사 / A5신 / 240면 / 2500원

노무라증권

명노을 편역

86년도 일본의 순이익 제1위 기업으로 부상, 금융회사가 '머니게임'으로 제조업체를 추월하는 기적을 낳은 노무라증권의 모든 것을 파헤친 책. 노무라의 정보활동망, 경영전략, 기업문화, 그 성장의 저력과 강점을 대화체로 알기 쉽게 엮었다. 부록으로 노무라증권의 개요, 증권시장의 현황, 일본경제의 주요 지표를 실고 있다.

김영사 / A5신 / 262면 / 3500원

元曉의 認識과 論理

申賢淑 저

신라 불교의 제일인자인 원효의 「관비량론」의 연구서. 이 책은 比量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여 지식론, 추리, 변증론으로 논리의 전개를 구성한 원효의 「관비량론」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원효의 모든 저서 속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수집하여 모두 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효교학사상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民族社 / A5신 / 138면 / 3000원

라마크리슈나

로맹 롤랑 저 / 박임, 박종택 역

인도의 大聖者 라마크리슈나의 생애를 프랑스의 문호 로맹롤랑이 쓴 종교이야기. 라마크리슈나가 힌두교의 전통 속에서 神과의 합일을 체험하며 자아의 완성을 실현하고, 마호메트교와 기독교에도 귀의하여 모든 종교의 진리가 결국 하나로 통합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정신세계사 / A5신 / 212면 / 2800원

貿易學概論

金行權, 申東洙 공저

국내의 무역환경의 급변과 무역실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제도의 대폭적인 변경에 따라 개정, 보완된 책. 무역의 기초사항, 국제무역 이론 부분, 무역정책 및 국제무역환경 부분에서부터 HS제도와 새로운 대외무역법령의 시행에 따른 포괄수출증인 및 수출입거래형태, 산업설비수출 등에 이르는 무역실무 전반에 관한 이문서이다.

貿易經營社 / A5신 / 646면 / 8000원

노이로제

金鍾殷 著

현대사회에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정신건강의 요체는 무엇인가? 정신의학전문분야의 저자가 임상생활을 통해 겪고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빚어진 갖가지 경험들을 정신의학 측면에서 흥미있게 기술한 정신건강 에세이집. 성과 정신건강, 수험생과 정신건강, 중년기의 정신건강 등 각 분야에 걸친 정신요체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다.

동화출판공사 / A5신 / 370면 / 3500원

自·他殺現場 鑑識의 實際

李三載 著

치안본부 형사부 형사공조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자가, 다년간 일선수사간부로 활동하면서 현장감식에서 얻은 경험을 집대성해 책으로 펴냈다. 조사의 착수에서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과정에 있어서 현장감식요령을 평이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자살·타살의 판별문제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렸다.

第一加除法令出版社 / A5신 / 304면 / 5000원

사회윤리학 이론의 구성

M. 호네커 著 / 남정우 역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근본문제를 사회적 행동과 기독교신앙의 관계, 사회윤리학의 의미, 사회윤리학의 논쟁점들의 분석을 통해 살핀 책. 저자의 독특한 방법론과 함께 종교사회주의와 문화신교주의, 종말론적 윤리이해의 방향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대한 기독교출판사 / A5신 / 216면 / 3100원

詩論

金竣五 著

‘同一性’의 감각이 시적 세계관을 비롯하여 언어, 리듬, 이미지, 비유, 상징, 시제 등 시의

구성요소에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시의 구성원리와 창작과정을 다룬 詩論이다. 시의 일반적 요소를 기술하는 한편 적절한 예를 들어 현대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二友出版社 / A5신 / 344면 / 5500원

꾸러기천재들과 괴짜선생님

야로슬라브 자크 著 / 송순섭 역

라틴문학과 불문학을 전공, 저널리스트로도 활약한 바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가가 쓴 캠퍼스 소설. 고등학교의 풍속도를 익살과 재치로 그리고 있다. ‘꿀찌의 변명’, ‘캠퍼스의 괴짜들’, ‘선생님은 주무시네’ 등 즐겁고도 말썽 많은 학생생활을 그리고 있다. 유럽에선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한 화제작

청조사 / A5신 / 166면 / 2300원

‘한’ 철학과 현대사회

최민홍 著

한민족의 순수한 정신적 뿌리를 ‘한’이라고 보고, 이것의 개념과 역사적 개념을 정리한 책. 단군의 개국신화에서부터 최치원의 현묘지도나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에 이르기까지 중심이 되는 것이 ‘한’이라고 보고, 이 ‘한’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인류가 지향해야 할 등불이라고 주장한다.

성문사 / A5신 / 203면 / 5000원

東洋學 이렇게 한다

安原田 著

증산도 중앙중무부 부중정으로 있는 저자가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의 김용옥교수에게 보낸 도전장. 철학, 역사, 종교를 통해 한민족의 현실과 미래를 조명하는 3부작 중의 제1권으로, 김용옥교수의 氣哲學試論을 비판하고 동양학의 본질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대원출판사 / A5신 / 384면 / 4500원



학회지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二重言語學會 編



二重言語學會(회장 박영순·고려대교수)는 會誌 제3호를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특집으로 펴냈다.

한국어는 한민족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 신분증’이라는 생각

화제의 책

나는 숨을 쉰다 꿈꾸는 보초



이색적인 시집 두가지가 동시에 출판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나는 숨을 쉰다」(문학과비평사)는 프랑스의 조각가 자코메티의 작품과 젊은 시인 최승호의 시를 조화시킨 그림시집. 비본질

이색출판

'87 國民生活時間調査

한국방송공사 편



으로, 해외교포들의 우리말 사용이나 우리 말을 배우려는 외국인 교육문제에 대한 글을 중점적으로 실고 있다.

「한국말과 글의 특성 비교」(김병원), 「在中共韓人들의 문학활동과 한국어이질화양상」(朴榮順), 「중공 한국교포의 한국어연구동향」(최기호), 「교포2세의 한국어와 쓰기교육」(백봉자) 등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심재기교수의 미국체류기인 「재미교포의 민족정신」, 이상익교수의 「서울대-UCLA 한국어·문화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소개」도 관심을 모은다.

이밖에 일본 일교대학의 田中, Haarmann 교수와 이중언어학회 교수간의 좌담회 및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 최길원교수와와의 간담회 내용이 실려 있다.

탐출판사 / A5신 / 219면 / 비매품

적 ‘군살’을 모두 떨어버리고 앙상한 본질의 극한상태를 추구한 자코메티의 정신세계와, 도시적 삶의 우울함과 현대인의 소외를 파고든 최승호의 시세계가 만나 화합하고 충돌하면서 새로운 긴장과 미적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꿈꾸는 보초」(흔겨레)는 신예시인 박덕규의 시를 산업미술을 전공한 임대역이 만화로 표현한 ‘만화시집’. 두 사람은 군대시절 고참과 졸병으로 만나 우정을 다져온 사이로서, 우화적 현실비판과 병영생활의 고단함이 유머러스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들 시집의 출판은 독자의 시선을 끌려는 출판사의 상품전략과 다양한 시적 표현의 통로를 찾으려한 시인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경우라 하겠다. 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은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학교 신문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987년 6월에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엮은 것으로, 우리 국민의 시간사용과 시간대별 행동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다.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정기적으로 국민의 생활시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중요한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책에 실린 자료는 관공서는 물론 학술, 문화, 기업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작년 서머타임제의 부활에 따라 달라진 우리 국민의 夏季 시간사용 패턴에 관해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금년도의 국가대사인 올림픽에 기초자료를 마련해주고 있다.

남녀별, 직업별, 학력별, 지역별, 시도별 집계자료가 상세히 드러나 있다.

한국방송공사 / A4 / 1177면 / 비매품